

광주 휘발유 가격 4주째 내림세…체감 효과는 ‘글쎄’

12월 셋째 주 휘발유 ₩당 1천727.5원

전남도 1천749.8원 2주 연속 하락세

국제유가 약세에도 1천700원대 부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주보다 ₩당 4.3원 내린 1천741.8원이었다.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이 표시되었다.

/연합뉴스

667.9원에서 1천663.9원으로 4원 하락했다.

이처럼 지역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최근 차량을 구입한 박성호(30) 씨는 “기름값

이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며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기

위해 주유 전마다 검색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유가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당 4.3원 내린 1천741.8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 대비 5.7원 하락한 1천805.1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는 6.0원 내린 1천713.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상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 ₩당 1천749.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뜰주유소는 1천720.4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천65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합상 진전 기대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2달러 내린 60.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8달러 하락한 7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7달러 내린 80.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한국 경유가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국내 유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 이 크고 이러한 흐름이 1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 “언제 어디서나 노후 설계 지원한다”

오늘 ‘비대면 은퇴자산관리서비스’ 오픈
Wa뱅크 앱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광주은행이 언제 어디서나 노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22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AP)를 통해 ‘비대면 은퇴자산관리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비대면 은퇴자산관리서비스는 연금, 보험,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까지 포함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

으로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Wa뱅크 내 ‘더프라임에이지 은퇴설계’ 메뉴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필요 생활비와 예상 연금 수령액,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주택연금 등 추가 연금 활용 전략, 질세 방안 등 은퇴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쉽고 실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은퇴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은행 본점 3층에 위치한 은퇴자산관리전문센터 (The Prime Age Center)를 방문해 누구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PrimePBM센터(상무지구), 봉산WM라운지, 점단WM라운지 및 각 영업점 VIP룸을 통해서도 은퇴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WM고객부 김홍화 부장은 “비대면 은퇴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은퇴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GICON, 광주 콘텐츠기업 네트워킹 행사 성료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1일 “최근 서구 허리데이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2025 광주 콘텐츠기업 네트워킹 행사(광주 콘텐츠기업인의 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와 공

동으로 주최했으며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을 비롯한 광주 지역 콘텐츠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 네트워킹과 콘텐츠 산업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경주 GICON 원장의 인사말과 광주

창작콘텐츠산업협회 고미아 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콘텐츠 산업의 흐름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는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로간벤처스(유) 오상민 대표는 ‘콘텐츠 산업 현황과 투자 트렌드’를 주제로 투자 환경 변화와 기업 성장 전략을 공유했으며, 페르소나AI 유승재 대표는 ‘피지컬 AI 트렌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안태호 기자

aT,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ESG 혁신 대상’

소비자 모범 기관·기업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소비자 ESG 분야 최고 영예를 안았다.

aT는 21일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소비자 ESG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환경혁신분야 기후변화 대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소비자 평가를 함께 반영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 ESG혁신대상’은 ESG 소비자이니셔티브가 주최하고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aT는 올해 농식품 산업 전반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핵심으로 한 7대 혁신방향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후변화 대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신품종 여름배추 ‘하라듀’를 육성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도입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 유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588

그린
알로에